

韓國 開化期 女性服飾의 變遷要因

—集團服飾을 中心으로—

명지대학교 이과대학 가정학과
대학원 김 경 희
명지대학교 생활과학부 대학원
교수 조 효 순

目 次

I. 序 論	2) 1905년~1910년의 服飾
II. 女性服飾變遷의 社會的 要因	2. 日帝 統治期
1. 새로운 價値觀의 대두	1) 1910년~1919년의 服飾
2. 民衆에 의한 社會改革의 움직임	2) 1920년~1937년의 服飾
3. 女性의 近代 教育	3) 1937년~1945년의 服飾
III. 集團服飾의 도입으로 인한 女性服飾의 變遷	V. 結 論
1. 開化期	참고문헌
1) 1884년~1905년의 服飾	ABSTRACT

I. 序 論

우리나라는 상고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服飾의 변화가 있었다.

그 중에서도 固有服飾期인 三國時代, 統一新羅期, 高麗時代, 朝鮮時代, 開化期 등 몇차례의 변혁기를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중에서도 민족 고유 服飾기가 끝나고 二重構造 服飾양상을 보이게 되는 통일신라기와 洋裝도입으로 인한 韓, 洋服의 이중구조 양상을 보게되는 개화기이다. 우리나라는 개화기에 국가의 내적, 외적 요인에 의하여 위협을 받는 민족차원의 대변혁을 겪게 되었다.

본논문에서는 개화기 服飾이 어떤 국가적 사회적 변천요인에 의하여 우리에게 수용되고 변화 발전해 왔는가를 사회, 문화적 배경과 관련시켜 관찰해 보고자 한다. 연구의 시기는 전통服飾에 대

한 개량 논의가 가장 활발하게 전개 되고 集團服飾의 유형이 女性 服飾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 1884년 부터 1945년까지로 설정했다. 연구의 대상은 새로운 가치관의 대두, 민중의 사회개혁, 女性의 근대 교육론의 대두로 분류하고 集團服飾의 도입으로 인한 一般 女性服飾, 傳道婦人의 服飾, 女學生 服飾, 看護員 服飾, sports wear 등으로 선택하여 이에 따른 服飾 改良意識이 一般 女性服飾에 어떠한 변천 요인이 되었는가를 연구하였다.

II. 女性 服飾變遷의 社會적 요인

1. 새로운 價値觀의 擡頭

1) 實學의 영향

임진왜란, 병자호란등으로 격심한 타격을 받은

조선왕조 지배체제는 통치 질서의 와해 현상을 초래했고, 서구문물과 明, 淸代의 외래적 요인과 조선후기 전반에 대두된 내제적 요인에 의하여 실학 사상이 발생 하였고 양반층의 가치관, 세계관에 동요를 일으켰고,¹⁾ 이에 부응하여 1880년부터 전개되는 女性운동의 저변확대가 되었다.

2) 天主教의 영향

천주교가 西學의 일부로서 전개되었고 1784년 이승훈은 프랑스 신부 그라몽 (Louis de gramont)에게 세례를 받고²⁾ 강영숙은 여신도회장이 되었으며 이들의 포교 활동은 女性교육과 女性의 사회참여의 동기를 마련하였다.

3) 基督教의 전래

1876년 운양호 사건으로 일본과 수교하고, 1882년 한미통상조약, 1886년 프랑스 조약으로 基督教이 전래되었으며 1884년 基督教의 병원과 학교 설립을 고종황제로부터 인가 받게 되었고 미국 장노회 호레이스 언더우드(Horace de underwood)를 한국 최초의 선교 목사로 임명되었다. 이에 따른 女性 선교사들의 양장 착용은 전통 服飾의 작은 부분에서부터 개량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즉 새로이 대두된 가치관은 女性의 근대의식 함양에 밑거름이 되었다.

2. 民衆에 의한 社會改革的의 움직임

1) 東學革命的 영향

女性의 개화의식을 맹아시킨 또 하나의 계기는 철종 11년(1860년) 崔濟愚에 의해 창조된 東學에 의한다. 동학은 전봉준, 손화중에 의해 농민혁명으

로 진전됐고 남녀평등과 女性존중을 강조했다.

1894년 갑오경장대 개혁조문 가운데 “과부재가 금지”를 해제하였고³⁾ 甲午改革을 단행하지 않을 수 없게했다. 女性에 대한 의식의 변화는 후에 양장 수용을 가능하게 촉진시켰다.

2) 獨立協會의 활동

개화인사 및 재야인사들은 서재필과 손잡고 1896년 4월 7일 국문과 영문으로 된 獨立新聞(The independent)을 발간하여 본격적인 언론활동을 시작하였다. 이어 尹致昊, 李商在 등은 계몽운동을 전개했고 獨立新聞은 女性들의 인권과 지위향상을 위한 논설을 아끼지 않았다.⁴⁾

3. 女性의 近代教育

1) 獨立新聞에 나타난 女性 교육론

갑오경장으로 인하여 전근대적인 사회체제가 붕괴되고 선각자 지식인들에 의해 女性 교육관에 큰 변화를 가져왔는데 이에 큰 공헌이 된 것이 독립신문이었다. 1896년 4월 7일자 독립신문에 “세상에 불쌍한 인생은 조선 여편네니 우리가 오늘날 불쌍한 여편네를 위하여 조선국민에게 말하노라.”⁵⁾를 보면 구미국가의 女性 교육관과 비교하면서 女性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1898년 9월 13일 “자고이래로 어느나라 시기로 보던지 여인의 교육에 힘쓰는 나라 점점 흥왕한다는 것을 구미 각국을 보아도 알겠다”라고 되어있다. 兪吉濬은 서양의 女性관을 소개하여 女性을 인간 사회의 대등보와 같은 존재로 표현하였고 1897년 12월 31일 남녀평등전사, 교육기회의 균등을 주장하였다.⁶⁾

이와같이 독립신문은 女性교육론을 전개하여

1) 朴性鳳, 金泰永, “國史”, 경희대 총서 3권, 1988, p.252.

2) 李永獻, “韓國基督教史”, 컨코리아사, 1980, p.25.

3) 李達淳, 韓國政治史의 再發見, 삼익학원 출판부, 1986, p.84.

4) 李效再, “開化期 女性의 社會 進出”, 한국 여성사, 이대 출판부, 1972, p.25.

5) 獨立新聞, 1897, 4. 21일자

6) 獨立新聞, 1896, 9. 5일자

사회적 지위향상, 女學校 설립을 촉구하였고 개화기 한국女性服飾변천의 초점이 되었다.

2) 女學校 설립과 女性團體의 활동

(1) 女學校의 설립

1895년 2월 2일 고종은 서구문물에 따른 신학제를 도입하여 국가중흥을 위한 개방교육의 표방으로 教育立國 勅書를 내렸다. 이때 설립된 6개의 女性교육기관은 梨花學堂, 貞信女學校, 日新女學校, 婦人學校, 永化女學校, 順成女學校 등이다.

(2) 女性團體 활동

1898년 9월 1일 개화선각자들은 女學校 설립을 목적으로한 “女學校 實施通文”을 발표하기에 이른다.⁷⁾ 이것은 여자들이 근대사회의 일원이 되겠다는 최초의 참여이며 자발적인 여권선언으로 한국女性史에서 차후 여권운동에 전환점이 되었다. 이어 1925년에서 1910년 사이에 女性團體가 급격히 증가되었는데 그 양상은 다음과 같다.

최초의 女性團體는 養閑義塾인데 개교할 때 청색의 긴 적삼과 치마로 교복을 착용하게하여 단체服飾에 대한 개량의지를 여기에서 엿볼 수 있다.

Ⅲ. 集團服飾의 도입으로 인한 女性服飾의 변천

1. 開化期

1) 1884년~1905년의 服飾

1876년 丙子修護條約이후 서구문명과의 직접, 간접적인 접촉은 중세사적 사회에 근대의식의 자극을 갖게 하기에는 충분했다.

당시 일본은 1854년 미국과 親和條約을 맺고 신문명의 자체적인 수용이 어느정도 이루어진 상태였으므로 軍服의 洋服化는 물론 민간인의 洋服着用도 허용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그러므로 우리나

라에서도 개화인사들을 중심으로한 남성의 服飾부터 서양화되기 시작하였는데 최초로 양복을 착용한 이는 金玉均, 徐光範, 兪吉濟, 洪英植, 尹致昊 등 이었다.

1894년 갑오개혁에서 의복의 간소화를 이룩했고 1895년 양복의 착용이 허용되고 斷髮令이 공포되면서 군복의 양장화가 이루어졌다. 1899년에는 외교관의 복장을 양복화 했으며 1900년(光武4년) 4월 17일 칙령 제14호로 문관복장 규칙을 정하고 제15호로 文官 大禮服제식을 정했으며 제13호로 훈장규칙을 정하여 양복을 착용함으로써 신라 28대 진덕여왕이래 조선 509년까지 착용해온 중국식 관복이 구미식 관복으로 변화되기에 이른 것이다.⁸⁾

한국전통服飾의 비편리성에 부딪히게 되었으므로 군관복 중심의 남성服飾이 먼저 변화됨은 당연한 일이었다. 女性服飾은 남성의 급진적인 변화에 비해 女性의 근대의식의 함양에 발맞추어 集團服飾을 중심으로 서서히 변화되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 출현했던 傳道婦人의 服飾과 女學校 제복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最初의 洋裝 着用

1895년 갑오경장이후 단발령이 시행되고 양복의 착용이 허용됐지만 몇몇의 개화인사들을 제외하고는 양복을 입는 남성들은 거의 없었다. 그러므로 당시의 그러한 환경하에서 女性의 야장 착용은 경이적이기까지 했었다. 유수경(1989)은 우리나라에서 양장을 최초로 착용한 女性을 尹致昊의 두 번째 부인이었던 尹高羅로 보았으며 南潤淑(1989)은 이숙경으로 보았다.⁹⁾

甲申政變직후 재차 도입한 윤치호를 따라간 당시 부인은 윤고라가 아니라 이숙경이었다. 1891년생인 尹高羅는 양장을 처음 착용했다는 1899년에는 8세의 여아였다. 그러나 그녀가 사망한 1913년과 그녀의 부모가 미국생활을 마치고 귀국한 1905년을 놓고 본다면 1899년 당시는 윤치호의 부인이

7) 崔淑鄉, 鄭世華, “개화기 한국 여성의 근대 의식의 형성” 한국 문화 연구 논총 28권, 1976, p.344.

8) 金美子, “開化期の 服飾”, 문화재 보호협회, 1982, p.410.

9) 南潤淑, 韓國 女性服飾 制度의 변천 과정 연구, 세종대 박사학위 논문, 1990, pp.70~73.

아닌 것으로 입증된다. 그러므로 한국 최초로 양장을 착용한 女性을 이숙경으로 보는 남윤숙의 견해가 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1894년 의사인 Rosetta Sherwood를 따라가 미국에서 의학공부를 마친 최초의 여의사 박에스터, 앞에서 언급했던 尹高羅, 1890년대 미국에서 유학한 Nancy라는 女性, 1897년경 일본으로 유학가서 1907년에 귀국한 윤효구의 딸 윤정수, 1906년 일본에서 간호학과 음악을 배우고 귀국한 윤정자 등이 있었다.¹⁰⁾ 또한 궁중내에서 양장을 처음 착용한 嚴妃를 빼놓을 수 없다.

양장의 허용이 1895년 갑오경장시에 단발령과 함께 선포되었으므로 갑오경장 이후에 엄비의 양장착용으로 추정할 수 있다. 1900년 엄비가 착용했던 大禮服의 모습과 양장을 했던 모습을 비교해 볼 때 양장을 착용한 모습이 대례복의 차림보다 짧아보이므로 엄비의 양장착용을 1900년 이전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궁중에서 양장착용이 생각보다 빠른 시일에 이루어진 것으로 짐작된다. 엄비를 포함한 개화 女性들은 개화 초창기 당시 너무나도 파격적이었던 양장의 착용이었으므로 근시일내 양장의 유행을 선도했다기 보다는 한국 전통服飾의 개량논의로 발전했다고 할 수 있다.¹¹⁾

(2) 一般女性的 服飾

1890년대 저고리의 단소화, 저고리 길이 단소화, 치마길이의 최장화 현상에 따라 은폐성을 강조해야 했던 당시의 상황으로써는 줄잇말(가리개용 허리띠)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원래 허리띠에는 두가지의 종류가 있었는데 그 하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허리띠고 또 하나는 당시의 관속에서 저고리 길이의 단소화로 인해 치마와 저고리 사이의 겨드랑이 밑살이 보이게 되자 그 가리개 역할을 하기 위해 생겨난 것이었다.¹²⁾

후자의 발생은 당연히 저고리의 단소화 경향이 나타나는 조선후기인 하나의 변천요인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1894년 갑오경장을 기점으로 더 이상 짧아질 수 없을 만큼 짧아진 저고리는 傳道婦人들과 女學生들이 선두로 길어지기 시작했고 1900년대에 들어서는 사회전반에 걸쳐 服飾의 개량에 대한 논의가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3) 集團服飾의 類型

가. 傳道婦人의 服飾

갑오경장에서 반상의 계급이 타파되고 또한 基督敎의 전래로 부녀자들의 신앙심과 의식이 개화된 傳道婦人들이 服飾개량을 이룩하게 되었는데 이들은 서양服飾의 간편성을 본따서 극단적이었던 저고리 길이를 조그씩 길게하고 치마의 길이를 짧게 만들어 활동성있게 했다. 또한 순색의 저고리는 상상할 수 없었던 때이지만 傳道婦人들은 과감히 순색바탕의 기존의 것보다 길어진 저고리에 짧아진 치마를 착용함으로써 경이적인 fashion의 流行을 예고했다.

나. 女學生 교복

1885년 미국 북감리교에서는 5명의 선교사를 우리나라에 파견했는데 아펜셀러부부, 스크랜톤의 사와 스크랜톤 목사부부, 그의 모친 메리스크랜톤이 그들이다.¹³⁾

선교사였던 아펜셀러는 교육을 통한 선교의 목적으로 1885년 8월 8일에 두명의 거주아이를 데리고 학교를 시작하여 다음해 감리교 선교부의 공인을 얻고 高宗皇帝로부터 培材學堂이란 이름을 하사받기에 이른다.

감리교 여선교사 스크랜톤은 1886년 5월 31일 학생으로 한사람을 받아들여 선교를 위한 교육을 시작했는데 그날이 梨花學堂의 창립일이 되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교복은 梨花學堂의 아라사제복은 목면옷감으로 만든 치마 저고리였다. 당시

10) 李效再, 전게서, pp.54~56.

11) 南潤淑, 전게논문, pp.73~75.

12) 柳喜卿, “한국 여성복식의 연구” 한국 여성사 II, 이화 출판부, 1972, p.206.

13) 金貞玉, 이모님 金活蘭, 正宇社, 1985, p.38.

계복을 입혔다는 것은 현대 교복의 착용과는 취지가 달랐다. 여자교육에 대해 一般인의 인식이 부족했던 당시인이라 학생구하기가 힘들었고 교육을 받던 학생들까지도 도망가기가 일수였으므로 죄수에게 푸른옷을 입혀 도망갈 수 없게 하듯이 눈에 띄는 붉은 옷을 입힘으로써 기숙사에서 함부로 외출하지 못하고 또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저의가 숨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의 上下同色の 韓服은 韓國傳統服飾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것으로 선교사들의 원피스에서 착안된 듯 하다. 당시에는 과격적인 배색의 한복으로 여겨져 一般인들의 구경거리가 되었으나 후에 上下同色の 한복배색의 효시가 되었다.

1887년 학생수가 7명으로 늘어 났을 때 명성황후는 梨花學堂이라는 이름을 하사하였다.¹⁴⁾

현 貞信女學校의 전신으로 1887년 여선교사 Anny Ellers가 한명의 고아를 데리고 자기 숙소에서 키운 것이 학교의 시초가 되었던 연동女學校의 초창기 학생들의 服飾도 이화의 초창기 女學生과 비슷한 服飾을 착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¹⁵⁾

1896년 5월 2일 외국어 학교의 花類會가 열렸는데 이것이 학교운동회의 시초로 여겨진다.¹⁶⁾

제3대 梨花學堂 당장으로 취임한 미스 츠라이가 대담하게 시도했던 이 화류회는 장안에 쓰개치마의 대열을 이루어 一般인들의 구경거리가 되기도 했다.

1902년부터 梨花學堂에서는 학생수가 많아지자 학생 스스로 의복을 마련하게 하였는데 그후부터 옥색치마에 흰저고리가 교복화되었다.

당시 역학생의 머리는 치렁치렁 땀아 자주나 다홍댕기를 길게 드리웠고 신발은 짚신, 미투리를 신었는데 날이 곳으면 나막신을 착용하기도 했다.

2) 1905년~1910년의 服飾

러일전쟁에서 일제의 승리로 일제는 1905년 7월 포츠머스조약에 의해 한국에 있어서의 정치, 경제, 군사상의 특권을 러시아로 부터 인정받고 伊藤博文을 한국에 파견하여 군대를 동원하여 궁궐을 포위한 후 대신들을 협박하여 韓日協商條約을 억지로 체결하였는데 이것이 1905년에 체결된 乙巳條約이었다.¹⁷⁾ 한편 국민들의 민족적 자각이 더욱 성숙하게 되었으며 상실되어가는 국권을 되살리기 위해 범국민적인 애국계몽운동이 확산되었다. 애국계몽단체들의 女學校 설립이 추진되어 이 기간 동안 많은 女學校가 설립되었다.

1900년대애국계몽기라고도 불리는 이 시기에서는 언론에 의해서 대두된 논설을 중심으로한 의복개량논의, 一般女性의 服飾양상, 양장의 착용 등에 대한 논의와 함께 集團服飾의 유형으로서는 學生服飾과 看護員服飾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1) 言論을 통한 服飾改良案

이 시기에 적극적으로 논의된 의복개량안은 조선시대 팽배하던 내외법의 폐지 주장이 신문들을 통해 널리 알려지면서 부터인 것으로 생각된다.

萬歲報의 1906년 8월 24일자 논설에는 내외법을 범한 內庭突入罪律의 불평동성을 지적하고 제국신문에서는 時宜에 맞는 내외법의 개혁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¹⁸⁾

“여자가 문 밖 출입할 때 부모 형제나 아주 가까운 친척이나 신임하는 하인의 동행이 없을 때는 나가지 않는다.”

“외출시에는 절대로 교자를 타거나 장옷을 입지 않는다”라고 한 조항은 내외법폐지의 첫 단계가 장옷의 폐지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우리나라 여자의 적오리란 거슨 소매 뿐이오 길이가 업서서 아모리 단속하난 부녀라도 허리가

14) 崔恩喜, 韓國 開化期 女性 列傳, 정우사, 1985, p.47.

15) 貞信 여자 고등학교, 第75回 卒業 앨범, 1988

16) 李圭泰, 한국 여성의 의식구조, 신원 문화사, 1993, p.177.

17) 朴性鳳, 金泰永, 전계서, pp.303~304.

18) 제국신문, 1907, 10, 11일자, 崔恩喜, 조국을 찾기까지, 탐구당, 1979, p.42.

들어나 붉은 살이 들어나지 안이치 못한즉 만일 처음 보난자로 말하면 그런 괴이한 일이 없고 또 그 의복의 빗치 여러 가지로 유두분면으로 단장한 즉 남 보기에 사람의 모양갓지 안이 한지라.”라고 하였다.¹⁹⁾ 내외법의 쇠퇴로 인하여 장옷의 착용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러한 비활동적인 저고리는 외출 등의 생활복으로서는 적합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외법의 폐지는 장옷의 폐지를 요구했고 장옷의 폐지는 동시에 저고리의 길이에 대한 계량을 필요로 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제국신문의 1906년 5월 31일자 논설중에서 “정부에서 여자의 服飾을 별도로 제도를 내어 상하의 의복을 한빛으로 하고 저고리를 길게하여 살이 보이지 않게하고”라는 기록이 보이는데 이러한 服飾 개량에의 구체적인 논의는 傳道婦人의 服飾에서 착안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傳道婦人의 服飾은 과히 선구적이라 할 수 있다.

萬歲報에서는 다음과 같은 논설을 읽을 수 있다. “...夫人도 淡色衣服보다 深色을 着함이 가하다.”, “...여자도 長衣쓰는 것보다 벗고 다니는 것이 可하며...”, “...夫人의 衣冠制度를 改良함이 可하다”라는 논설에서도 장옷의 폐지론과 저고리의 계량안이 같이 대두되었음을 알 수 있다.²⁰⁾

“...외국 服飾이나 본국에서 신발명한 服飾으로 머리에 쓰지 않고 단이난 부녀...”라고 적혀있는 것을 보면 1906년 당시 장옷 등의 쓰개류를 착용하지 않고 다녔던 女性이 있었음은 물론 양장이나 또는 양장에 착안하여 만든 개량 服飾의 착용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같은 신문 1906년 6월 1일자 논설에서는 “...대한 자강회 평의장 윤효명씨가 년전 일본 갓슬대에 그 처자의 服飾을 새로이 발명하여 입었던대 그 제도로 말하면 그 대체난 이왕에 소매업

난 철록갓치 되얏난 대 그갓다난 거슨 양복갓과 방사하고 적오리 아래 도련에 주름잡은 치마랄 달아 입은 모양이오 양복도 안이오일복도 안이오 분명한 우리 대한민국 데도라.”고 쓰여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서의 철록이란 철릭을 말하는 것으로서 소매가 넓은 衣와 裳이 연결되어 있으며 허리에 주름이 잡혀있는 옷을 말하는 것이다.²¹⁾ 그러므로 윤효정이 입었던 옷은 상하가 연결되게 만든 원피스로 서양복과 한복을 절충하여 만든 개량복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제국신문 1907년 6월 19일자 논설²²⁾에서는 전통적인 치마 저고리를 바탕으로하고 거기에 양장의 장점을 살리는 개량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1906년 1월자 신문 논설에서도 같은 개량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저고리나 적삼은 앞뒤의 셔를 조금 길게하여 수구와 도련에 선을 두르고 치마를 통치마로 개량할 것을 제의하였으며 白衣를 착용치말고 色衣를 임의로 입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萬歲報 1906년 11월자 논설에서의 衣制改正法 制定論을 통하여 장옷 착용 폐지론을 주장하고 帽子着用論을 제시한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장옷 폐지의 최선을 방법으로 받아들여져 李鴻來가 女帽製造會社를 설치하기도 하였으니 모자의 착용이 널리 보급되지는 못했다.²³⁾

“服飾은 남자 적오리에 치마입고 머리난 서양부인의 머리갓치 족치고 머리에 아모것도 쓰지않고 우산만을 달고 단이며...”에서 보여지듯이 장옷의 폐지와 함께 의복의 개량이 이루어 졌으며 그 과도기적 현상으로 내의를 위한 우산이 등장했음을 알 수 있다.

이 시기에 장옷의 대응으로 모자 착용론이 대두되고 모자 제조회사까지 설립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모자유행의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은 조선시대

19) 제국신문, 1906, 5. 31일자

20) 女子 教育會, 通常會의 衣服 改良論議, pp.30~31.

21) 金英淑, 한국 복식사 辭典, 민문고, 1988, p.467.

22) 朴容玉, 한국 근대 여성사, 정음사, 1975, p.38.

23) 崔恩禧, 전계서, p.110.

부터 내외의 목적으로 착용해 오던 장옷의 목적을 파악하지 못한데서 온 결과로 여겨진다. 장옷을 포함한 쓰개류의 착용목적은 머리나 몸을 가리기 위한 것보다는 얼굴을 가리기 위한 목적이 더욱 중요하게 여겨진 것으로 보여지므로 장옷이 없어지던 시기에 모자보다는 우산이 적합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1907년 6월 19일자 제국신문에서는 신발에 대한 논의가 보여지는데 양반층 부녀자들이 착용하는 비경제적인 錦緞靴대신 洋靴과 비슷한 모양의 皮製半靴을 착용할 것을 제의하고 있다. 이 시기의 服飾개량안은 이렇게 더욱 구체적으로 논의되었고 集團服飾의 유형에 있어서도 애국계몽운동의 일환으로 많은 女學校가 설립되어 淑明女學校에서 최초로 양장교복이 등장하게 되었고, 韓, 洋服의 절충으로 활동성을 도모한 看護員복이 처음으로 출현하게 되었으며 이들의 服飾은 一般女性服飾의 개량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2) 一般女性的 服飾

1890년대에 일어났던 저고리 길이의 최 단소화에 제동이 걸리고 조금씩 길어지는 양상을 보였을 뿐이었다.

여학도 최활란이 유학을 마치고 동경에서 유행하던 팜프도어(히사시가미)머리에 에다 구두를 신고 검정 짧은 통치마 차림으로 귀국하여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 머리양식은 곧 女學生들 사이에서 널리 유행하였다. 이 시기에 양장을 착용한 女性으로 進明女學校의 여교사 에밀레라는 분이었는데 이름까지도 서양식으로 고치고 양산을 들고 양장을 한 그녀의 이질적인 차림은 一般인들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다.

(3) 集團服飾의 類型

가. 女學生 校服

1905년부터 1910년까지의 사회전반의 분위기를 잘 반영한 듯 女學生의 服飾에도 많은 변화가 일

어났다. 양장교복은 明信女學校가 개교한지 1년후인 1907년에 처음 선보였고 약3년여동안 입혀졌다가 반복의 리바이벌 붐이 일어나면서 없어졌다. 이 교복은 현재의 看護員복식과 비슷하며 영국의 귀족식 의상인 메린스식 자주색 원피스로 분홍색 안을 받친 본넛(Bunnet)을 썼으며 머리형식은 팜프도어를 했다.²⁴⁾

현대의 교복이 양장인 것을 감안하면 진정한 의미의 교복의 효시는 명신女學校의 양장교복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1908년 梨花學堂의 후라이(Frey Miss Lulu E.)당장은 배꽃의 색으로 앞부분의 녹색과 꽃부분의 백색을 학당의 색으로 정하였다. 또한 1908년 메이데이 행사대에는 배꽃의 색인 흰색을 입게 하였다. 1908년 처음 열린 梨花學堂의 이 행사는 창립 24주년을 맞아 처음을 개교기념 축제를 열고 메이퀸을 선발하여 대관식을 거행했던 최초의 운동회라고 할 수 있다.²⁵⁾

京畿女高의 전신인 漢城女學校는 1908년에 학생들에게 일체의 쓰개치마 착용을 금지시키고 검정 우산을 들게 했다. 眞信女學校 역시 1908년에 흰저고리에 검정치마를 교복으로 제정하고 일체의 쓰개치마의 착용을 금지 시켰다. 1900년대에는 이화, 眞信, 배화학교 학부모의 거센 항의로 학교측은 내외를 목적으로하는 우산을 하나씩 나누어 주게 되었고 그것을 사용함으로써 쓰개치마의 폐지는 더욱 가속화 되었다.²⁶⁾ 우산의 착용은 쓰개치마가 사라지는 기간에 나타난 과도기적 차림으로 유행을 선도하였고 그 fashion은 일반 부녀자에게 유행하였고 1900년대 말기에는 一般女性的의 전유물이 되었다.

女學生의 服飾은 명신女學校 양장교복의 분홍색 본넛 안에 했던 “팜프도어”가 학생들에게 크게 유행하였다. 신발은 보통은 굽은 짚신을 집에서 만들어 신었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던 학생은 미투리를 사서 신었다.

24) 조선일보, 1993, 5. 3일자, 16면, “85년전 梨花 첫 메이퀸 선발”

25) 이영헌, 견거서, p.26.

26) 大韓每日新報, 1907, 8. 4일자

나. 看護員 服飾

1893년 어비슨(U.R. Avison)박사는 한국에서의 의료사업 확장계획서를 발표했다. 세브란스(Mr.L.H Severance)씨의 후원으로 서울에서 1904년 9월 23일에는 14분과의 대병원인 세브란스 병원을 개원하게 되었다. 또한 의학교와 간호학교를 설립하여 1908년 처음으로 7인의 의사를 배출해내게 되었다.²⁷⁾

이 시기에 간호직에 종사하는 여성으로 1907년 고종퇴위와 함께 일어났던 일본군과의 교전에서 부상당한 한국군인을 간호했던 看護員은 한 양복의 절충식 의복을 이미 착용했던 것을 짐작할 수 있다.²⁸⁾ 세브란스 병원 看護員양성소 학생들의 당시 제복은 발끝까지 오는 길이의 치마와 상의가 연결된 원피스의 형식으로서 허리에는 흰색 앞치마를 들렀다. 또한 1906년 첩리와 비슷하게 만들었던 윤정원 개량복 형태와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

2. 日帝 統治期

1) 1910년~1919년의 服飾

1907년 乙巳條約과 韓日新協約이 체결되었고 1911년의 朝鮮敎育令을 비롯, 1915년 敎育令, 1920년의 私立學敎規則改正令을 발표했다. 그리하여 근대교육의 시작이래 민족사상을 육성해오던 사립학교가 1911년부터 1921년의 10년 동안에 1,365교가 문을 달았다.

1914년 발발하였던 세계 제1차 대전이 종전하던 1919년 2월 8일, 일본 동경에서 유학생들은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기에 이르렀고 3.1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服飾에 있어서도 양장화가 진행되던 것이 주춤하게 되면서 이 시기에는 독립을 위한 애국심의 고취로 한복을 애용하게 되었다.

(1) 一般女性의 服飾

1910년대의 一般女性의 服飾은 치마허리의 변화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저고리에 있어서도 단소화 경향이 나타나고 버선목이 보일 정도로 짧아진 치마와 길어진 저고리 차림에 내외용 우산을 든 모습 그리고 一般부녀자의 쓰개치마 착용의 모습은 개화의 정도와 신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던 服飾의 양상을 한눈에 볼 수 있다.

(2) 集團服飾의 類型

가. 女學生 校服

숙명女學校의 학생들도 여름에는 흰저고리와 자주색 치마의 한복 교복을 입었다.²⁹⁾ 1911년에도 培化學堂, 平壤의 崇義女學校가 쓰개치마의 착용을 금지시켰다.

한편, 이 시기부터 女學生들을 중심으로 두루마기가 입혀지기 시작하였다.³⁰⁾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많이 입었던 女性의 두루마기 착용을 구한말부터 다시 착용하게 된 이유는 첫째는 女性의 신장된 지위를 나타내기 위함 이었고, 남성의 전유물이라고 여겨지던 의례용 두루마기를 착용함으로써 남성과의 동등의식을 표출하려는 심리로 볼 수 있다.

둘째는 조선새대를 통해 외출시 내외를 목적으로 착용한 쓰개류가 女性의식의 개화로 인해 소멸된 구습의 허전함을 메꿔줄 수 있는 무엇인가가 상대적으로 필요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당시 두루마기의 착용은 내외법의 연장심리로 보이며 이것이 현대에 이르러 의례용으로 정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900년대 말에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었던 팜프도어는 얼마되지 않아 사라지고 둘레머리 트래머리가 끝이어서 유행하였다.³¹⁾ 그러나 항일의식

27) 淑命 五十年史, 숙명 여자 고등학교, 1956, p.101.

28) 유수경, 전개논문, p.154.

29) 李圭泰, 전개서, p.231.

30) 운동의 斷續, 第22號, 음희 2년(1908) 6월

31) 閔淑鉉, 박해경, “한가람 봄바람에”, 梨花100年 野史, 지인사, pp.155~156.

이 날로 고조되어 각별한 관심을 쏟았던 女學生들의 머리 모양의 주류를 이루었던 땡기머리는 점차적으로 그 길이가 짧아지고 땡기의 색깔도 학교색을 좇아 통일되기도 했다.

女學生들이 그 당시 선호하던 신발은 미투리였고 한성女學校가 처음으로 통치마를 교복으로 도입하여 발등위까지 치마의 길이가 치숫자 버선목이 길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나. Sports wear.

1890년대부터 배제학당에서 체조시간에 군사훈련을 받았다는 기록과 외국어학교등 운동회의 초보단계인 화류회를 개최한 것으로 보아 남성을 위한 근대적 체육이 일찍부터 성행했었음을 알 수 있다.

“...體育의 目的은 身體의 生長과 健康을 增進하여 精神的 國民이 되는데 在한 것이라 연하나 比目的을 달하난 方法은 右의 圖式과 如하니.”³²⁾에서의 기록에서 잘알 수 있다.

그러나 초기 女性양장의 수용에서도 나타났듯이 女性의 체육은 集團服飾의 한 유형인 sports wear역시 한복의 개량에서 부터 시작되어 서구식 스포츠복을 수용하는 단계로 이행되었다. 이 시기에 나타난 女性의 초보적인 체육으로는 주로 숙명女學校에서 실시한 과도기적 운동형태인 徒步部를 들 수 있다.

1911년 梨花學堂의 교사 Miss Walter와 Miss Pye에 의해 고안된 어깨허리이다.

복잡한 속옷을 포함한 치마가 허리끈이 풀어져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팽퐁뽀어야 했던 한복에, 어깨끈을 달아 가슴을 압박하지 않고 위생상 건강상에도 좋다고 판단하여 시간을 두고 한 국인 여교사에게 먼저 입혀본 후, 학생들에게 고안한 어깨허리의 패턴을 나누어 주어 재봉시간을 이용해 고치도록 하였다. 이러한 획기적인 치마의

개량은 一般女性들에게 빠른 시일내에 널리 퍼지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미스윌터의 회고록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는데, 체조시간에 간편히 개조한 긴저고리에 통치마를 입어본 학생들은 편리하고 실용적인 면에 반하여 일상복으로 입기 시작하였다.³³⁾

2) 1920년~1937년의 복식

1920년 이후 일제가 채택한 정치노선은 문화정치를 표방한 식민지 분할정책이었다.

1920년 東亞日報, 朝鮮日報의 두 조선인 일간지 창간에서도 보여지듯이 제한된 범위내에서 언론 활동 등의 자유를 보장하는 한편, 집회 결사의 자유도 어느정도 풀어주었다.

표면적이기는 하지만 문화정치를 표방하고 있었으므로 服飾에 있어서도 사회환경적 영향을 받아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시기에 一般女性의 服飾은 물론 속옷의 변화와 본격적인 양장의 전성기로 접어들면서 유행되었던 단발의 소개, 또한 集團服飾의 유형으로 一般服飾의 양장화를 선도했다고 볼 수 있는 女學生 교복과 획기적인 반바지 형식의 볼루머의 도입 등, 새로운 형식의 Sporst wear가 출현하였다.

(1) 一般女性의 服飾

1920년대에도 一般女性들은 전통服飾을 주로 입었는데, 쓰개치마의 폐지와 1930년대를 전후로 저고리 길이가 13~14센티미터정도 까지 길어졌고 긴 길이에 비해 화장이 짧은 것이 이때의 유행이었다. 진동, 소매나비, 수구도 더욱 넉넉해 졌고 특히 배래선은 뚜렷한 곡선을 이루었다. 고름의 형태도 넓고 길어졌으며, 동정도 길어졌다.

傳道婦人들에게서 처음 입혀지고 新女性들에 의해 소개된 짧은 통치마가 1930년대에 들어서 女性들의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게 되자 服飾의 주류

32) 柳喜卿, 전계서, pp.652~653.

33) 南潤淑, 전계논문, 수도여사대, 1972, p.31.

趙孝順, 朝鮮 後期 女性服飾 改良 論議, 복식 4호, 1981.

를 이루었다. 또한 폭이 줄어든 짧은 통치마에 어울리는 양말과 양화가 등장했고 양말의 빠른 유행으로 버선과 양말을 혼용하게 되었다.

속옷의 변화도 일대 혁신으로 여겨졌으니 치마의 어깨허리가 속옷에도 응용되었고 서양의 속옷류가 전통 속옷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다.³⁴⁾

개래식 속옷 중 속적삼은 샴시로 다리속곳, 속속곳, 바지는 팬티로 대응되었고 단속곳, 너른바지는 사루마다가 대신 입혀졌으며, 무지기 대습치마는 속치마가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되었다.³⁵⁾

1920년대에 들어서 무엇보다 획기적인 것은 단발의 유행이었다. 1928년 金活蘭이 예루살렘 여행길에서 처음 단발을 하고 돌아와 그 영향으로 1934년에 이화학생들에게 단발이 流行하였다.³⁶⁾

(2) 集團服飾의 類型

가. 女學生 校服

1919년 3.1운동이 덧없이 실패한 후 사회전반에는 독립을 위한 힘을 길러야 한다는 자각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1920년 당시의 女學生 교복의 형태는 흰저고리에 검정 통치마 차림의 통일된 형태였다. 모든 女學生 복장이 白上黑下로 통일되면서부터 1920년 이화女學校는 치마를 층으로 만들어 입었고 同德女學校는 치마끝단에다 흰줄을 물결무늬로 꼬불꼬불 넣었다.

崇義는 감색이나 송도직 치마 등의 빛깔과 천으로 변화를 모색하였다. 겨울에는 거의 모든 학생들이 검정 두루마기를 공통으로 착용하고 검은 양말을 신었으며 여름에는 흰 양말을 신었다.³⁷⁾

1930년대에는 명신女學校에서 3년간 착용하다 사라진 양장교복이후 양장교복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1931년 개정된 숙명女學校의 교복도 여름에는 흰브라우스에 감색 잠바 스커트를 입고 자주색 리본을 단 흰모자를 썼으며, 겨울에는 白

色三線을 치고 자주빛 넥타이를 맨 sailor복 상의에 감색 스커트를 입고 자주빛 리본을 단 감색모자를 썼으며 이해 봄부터 웨타를 입기 시작했다. 동덕은 1930년부터 남색 넥타이를 단 세라복 상의에 감색의 맞주름 치마를 여름용으로, 감색 세라복 상의에 동색 맞주름 치마를 겨울용으로 입었다. 崇義에서는 하복은 모시로, 동복은 수박색의 세루로 된 한복 교복을 입었다. 京畿는 흰 블라우스에 감색스커트를 하복으로 입었으며, 겨울에는 다갈색 웨타에 감색스커트를 입었고, 배화는 1935년부터 넥타이 달린 블라우스와 감색주름치마를 입고, 덕성도 여름에는 흰블라우스와 검정의 주름치마를, 겨울에는 검정 블라우스를 입었다.

나. Sports wear

1920년대 이후의 체육은 학교체육의 작은 물을 벗어나 명실상부한 사회체육을 지향한 것이었다. sports wear도 한 양복을 병용해 착용하는 단계를 벗어나 정식으로 경기에 알맞는 유니폼을 착용하게 되었는데 1921년 개최된 제1회 全朝鮮庭球大會의 경기규칙을 보면 “出戰先手는 必히 유니폼을 착하고 경기시작보다 30분 前에 來場함이 可함.”이라는 항에서도 보여지듯이 이때 이미 팀 전원이 같은 복장을 하고 경기에 임했음을 알 수 있다.

학교를 중심으로 여자의 체육활동이 시작된 이래 우리나라 女性이 참가한 최초의 경기는 1923년 개최된 제1회 朝鮮女子庭球大會로, 이전에는 흰 치마 저고리에 백색 긴양말 그리고 백수건을 땀기드린 머리에 동여매고 테니스를 하였으나 이후에는 무릎길이의 스커트를 입고 땀기드린 머리 그대로 경기하는 것을 볼 수 있다.³⁸⁾

우리나라 최초의 女性심판으로 알려진 김복림은 통치마에 길이가 긴 저고리를 입고 트래머리를 하고 경기에 임했는데 당시의 복식풍속을 알 수

34) 이규택, 전계서, pp.227~228.

35) 趙孝順, 朝鮮 後期 女性服飾 改良 論議, 복식 4호, 1981.

36) 韓國體育百年史, 신원문화사, 1983, p.192.

37) 孫敬子, 開化期の 복식, 한국 분화계 보호 협회, 1982, pp.423~431.

38) 韓國體育百年史, 신원문화사, 1983, p.192~193.

있게 한다.

1925년경이 되어서야 흰 블라우스에 검은 블루머체육복을 입히는데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³⁹⁾

이러한 블루머 형식의 체육복 바지는 이미梨花學堂의 초대 당장이었던 스크랜튼이 체조시간에 착용하여 선보인바 있었다.

3) 1937년~1945년의 服飾

일제는 1937년에는 中日전쟁을 일으켰고, 1941년에는 태평양전쟁을 도발하기에 이르렀다.

1938년 3월 第3次 改正教育令이 공포되어 正科이던 조선어가 階意科로 되었고 그 해 4월부터 조선어는 철저히 금하였다.

이 시기에는 국가적 차원에서 전시체제에 돌입하였으므로 女性의 服飾도 단순한 형태의 기능적인 측면만을 고려한 服飾들이 集團服飾을 중심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1) 一般女性의 服飾

1937년 중일전쟁 발발 이후 저고리의 길이는 다시 짧아져 바스트 라인까지 근접해 올라 갔다.

깃 길이가 길어졌으며 고름은 1930년대 길어지는 추세가 계속되었고 고름대신 단추를 달거나 브로우치를 이용하기도 했는데 이것은 전세계의 전시체제로 인한 옷감부족과 민족적인 절약운동, 생활개선 운동의 발로로 생각된다.⁴⁰⁾

일제 말기 전시의 영향으로 일제에게 강요 받아 女學生들로부터 입기 시작했던 몸빼는 치마의 대신으로 곧 一般女性들에게도 널리 유행되어, 온나라가 몸빼 일색이 되었으나 해방후에는 다시 치마를 입게 되었다.

(2) 洋裝의 着用

중일전쟁 발발이후 그 영향을 받아 女性의 양장도 남성적인 스타일로 되어 어깨, 깃, 소매, 포켓

의 선이 직선형인 군복 스타일로 변한 Military look이 유행하였다.⁴¹⁾

간단복이라 불리던 원피스가 이 시기에 주류를 이루었던 양장이었는데 허리에 벨트가 있고 양옆에 주머니가 달려 있었다.

(3) 集團服飾의 類型

가. 女學生 校服

일제는 전시체제의 상황에 알맞게 女學生 교복을 개정하도록 강요했다. 그 일환으로 女學生에게 몸빼의 착용을 강요했는데 이는 女學生들은 물론 一般女性들에게도 널리 유행었다.

이처럼 몸빼는 1940년대 사회체제의 영향을 받은 당시 생활과 의식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교복의 개정을 강요받았던 이화여전은 몸빼에 운동화를 신게 되었다 몸빼의 착용을 반대하던 숙명은 백색 블라우스에 흑색바지를 하복으로 착용하였고, 동복으로는 상하 모두 검정색의 상의와 바지인 것을 교복으로 제정하였다.

여러학교들도 숙명의 교복을 따라 바지를 교복으로 받아 들였으므로 이때가 우리나라에서 女性 바지의 효시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배화와 덕성은 해방후까지 흰넥타이를 맨 검은 세라복 상의에 주름치마를 교복으로 입었다.⁴²⁾

1942년 3월 19일자 每日新報의 기사중에서 학생들의 제복통일에 관한 것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대동아공영권을 건설하는 일환으로 중등정도 남녀학교의 제복도 전선적으로 통일하기로 되었다. 女學生도 제복은 곤색사지로 짓는데 종래의 수병제복과 비슷하게 접어 붙이던 것을 없애고 치마 주름은 잡지 않는다. 그리고 옷양복옷소매 끝은 줄라매게 되는데 옷감은 지금까지의 보통제복에 비하여 3할가량 절약된다.”⁴³⁾ 貞信女學校는 일제의 강압에도 불구하고 무궁화를 상징하는 보

39) 유수경, 전계논문, p.225.

40) 李京子, 韓國服飾史論, 일지사, p.74.

41) 培花 七十年史, 배화여자중고교, 1968, p.354, p.486.

42) 淑命 五十年史, p.165.

43) 每日新報, 1942, 3. 19일자

라빛 저고리의 한복을 해방이 될 때까지 계속 착용하였다.⁴⁴⁾ 이렇게 개화기 집단복식의 유형은 우리 고유의 전통복식을 애호하며 개량하여 발전시켜 나간 것으로 생각된다.

V. 結 論

이상에서 韓國近代化의 과정에서 女性服飾 變遷요인으로 사료되는 集團服飾의 출현은 당시 우리나라의 특이한 개화과정에서 생긴 파생물이라 할 수 있으며, 이것은 政治, 社會, 文化的인 變遷要因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었다.

첫째, 實學, 天主教, 基督教전래 등이 새로이 대두되었던 가치관이 女性의 근대의식 함양에 밑거름이 되었다.

둘째, 東學革命은 여권의 신장, 女性 의식을 개화시켰고 服飾의 變遷요인이 되었다.

셋째, 독립신문 등 언론을 중심으로 한 女性교육론의 대두, 女學校의 설립과 女性團體의 활동은 集團服飾의 출현을 낳았고 이것은 一般女性服飾의 유행과 變遷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女性服飾變遷要因에 대한 論議는 다음과 같다.

1. 新女性의 服飾은 개화 초창기부터 착용된 양장이나 획기적인 스타일로 服飾유행을 선도하고 女學生服飾을 주도하였다.
2. 傳導夫人의 服飾은 선교사와의 잦은 접촉으로 서양복의 편리성을 좇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看護員服飾은 한복과 양복의 장점만을 살린 절충안을 수용했으나 우리 服飾의 주체적인 수용의 일면이라 할 수 있다.
4. 개화기 새로운 특수층인 女學生 服飾은 一般女性服飾을 주도해 나갔다고 할 수 있다.
 - 1) 이화 초창기의 상하동색 한복은 훗날 동색배색의 한복유행의 효시가 되었다.
 - 2) 장옷의 폐지는 조선시대 유교적 윤리관에 의해 팽배하던 내외법의 폐지를 초래했다.

3) 통치마의 교복제정은 一般女性服飾의 개량을 주도하였다.

4) 校服의 洋裝化는 一般服飾의 양장화를 주도했다.

5. 女性의 sports wear도 여학생의 체육복에서 유래되었다.

집단 服飾의 유형은 근대사회의 초보적인 단계에서는 필수적인 현상이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集團服飾을 중심으로한 韓國女性服飾은 서구문물의 무분별한 수용으로 인한 전통 고유服飾에서 양장으로의 급속한 외적변천요인과 의식의 근대화로 인한 합리적인 사고나 가치관등 내적 변천요인이 한복의 개량에서 발전하여 양장수용을 선도했다.

현대사회에 있어서 더욱 발달해 가는 매스미디어의 영향으로 服飾을 포함한 외래문화에 대해 무방비상태에 놓여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복식의 독자성을 지키며, 세계화와 더불어 외래문화의 주체적 수용을 이룩해야 할 때로 사료된다.

개화기 이후 現代女性服飾의 變遷要因에 대한 研究는 미래의 服飾變遷樣相을 예측하는데 좋은 사료가 됨으로 계속해서 연구되어야 할 과제이다.

參考文獻

- 柳喜卿, 韓國服飾史研究, 梨花女大出版部, 1975
- 李永獻, 韓國基督教史, 킨콜디아社, 1980
- 李效再, “開化期 女性의 社會進出”, 韓國 女性史 II, 梨花女大 1972.
- 李京子, 韓國服飾史論, 一志社, 1985
- 李萬吉, 韓國近代史, 創作과 批評社, 1993
- 朴谷玉, 韓國近代女性史, 正吾社, 1975
- _____, 韓國近代女性運動史研究, 韓國精神文化研究團, 1984
- 韓國基督教 100周年과 오늘의 韓國, 韓國基督教 100周年記念事業協議會, 1985

44) 貞信七十五年史, 정신여중고교, 1962, p.275.

- 李達淳, 韓國政治史의 再發見, 三益學院出版部, 1986
 - 유길준, “西遊見聞, 第5偏, 好待接條”, 한국명지대전집, 대양서적, 197
 - 金鎬逸, “韓國近代教育의 成立”, 韓國史學 2, 韓國精神文化研究團 史學研究室, 1908
 - 정재걸, “東學運動과 義兵運動期の 教育”, 韓國教育社, 풀빛, 1993
 - 柳喜卿, “韓國女性服飾의 研究”, 韓國女性史 II, 梨花女大出版部, 1972
 - _____, 韓國服飾文化史, 敎文社, 1982
 - 金貞玉, 이모님 金活蘭, 正宇社, 1985
 - 李圭泰, 李圭泰 코너(1985~1990), 朝鮮日報社 出版業務局, 1990
 - _____, “第1卷; 생구인가 사람인가”, 한국여성의 의식구조, 신원문화사, 1993
 - _____, “세상에 불쌍한 조선 네편네”, 개화백경 4, 新太陽社, 1988
 - 趙孝順, 韓國服飾風俗史研究, 一志社, 1989
 - 李仁子, 服飾社會心理學, 修學社, 1992
 - 루스 베네딕트, 文化의 패턴, 까치, 1990
 - 朴性鳳·金泰永, “國史”, 慶熙大叢書 3, 경희대출판국, 1988
 - 李圭泰, 버선발에 양구두, 신태양사, 1988
 - 崔恩喜, 조국을 찾기까지(1905~1945), 탐구당, 1979
 - _____, 韓國開化女性烈傳, 正音社, 1985
 - 金英淑, 韓國服飾史辭典, 民文庫, 1988
 - 閔淑鉉, 朴海環, “한가람 봄바람에”, 梨花 100年野史, 지인사
 - 李學來, 韓國近代體育史研究, 지식산업사
 - 韓國體育百年史偏刊會, 韓國體育百年史, 신원문화사, 1983
 - 鄭興淑, 服飾文化史, 敎文社, 1992
 - 淑明五十年史 編纂委員會, 淑明五十年史, 檀紀 4289
 - 培花七十年史, 培花女子中高等學校, 1968
 - 貞信七十五年史, 貞信女子中高等學校, 1962
 - Marilyn Horn, 제2의 피부, 까치, 1992
 - R.H. 라우어(정근식, 김해식 譯), 社會變動의 理論과 展望, 한울아카데미, 1992
 - Malinowski, The Dynamics of Culture Change
 - Wilbert E. Moore, Order and Change; Essays in comparative Sociology(New York: John and Son, 1967)
 - Bruce P. Dohrnwend and Robert J. Smith “Toward a Theory of Acculturation, Southwestern Journal of Anthropology, 8, 1968
 - 小川安朗, 服飾變遷의 原則, 日本 文化出版社, 1981
- 〈論 文〉
- 崔明仁, 韓國 開化期의 女性教育問題에 관한 研究, 성신여대研究論 6集, 3, 1970
 - 崔淑鄉·鄭世華, “開化期 韓國女性의 近代意識의 形成”, 韓國文化研究論集 28, 1976
 - 鄭忠良, 獨立新聞이 開化期 女性의 教育開發振興 및 社會參與에 미친 影響에 관한 研究, 韓國文化研究論集 25, 梨花女大, 1975
 - 金仁會, 개화기 여성교육에 관한 일고찰, 중앙대대학원, 1990
 - 金英宇, 韓國 開化期의 女性教育에 관한 研究, 公主師大 論文集 19, 1981
 - 李京子, 저고리 小考, 梨花女大大學院, 1970
 - 金美子, “開化期의 服飾”, 韓國의 服飾, 韓國文化財保護協會, 1982
 - 俞永敬, 韓國女性洋裝變遷에 관한 研究”, 梨花女大大學院, 1989
 - 孫京子, “開化期의 女服”, 韓國의 服飾, 韓國文化財保護協會 1982
 - 東亞日報社(刊), 3.1運動 50周年 記念 論文集, 同社, 1969
 - 南潤淑, 韓國女學生 服飾變遷에 대한 歷史的 考察(韓日合邦期中心), 수도여사대, 1972
 - _____, 韓國現代女性服飾制度의 變遷過程研

究, 세종대大學院, 1990

- 金美子, “開化期の服飾”, 韓國의服飾, 韓國文化財保護協會, 1982
- 朴京子, “學生服飾”, 韓國의服飾, 韓國文化財保護協會, 1982
- 李相禮, 韓國 스포츠웨어 變遷에 관한 考察, 세종대大學院, 1985
- 권혜영, 韓國女性洋服의 變遷에 관한 研究, 梨花女大大學院, 1983
- 金春善, 韓國女性洋裝의 變遷에 관한 小考, 梨花女大大學院, 1977
- 李松姬, 開化期 女性服飾의 變遷과 그 要因, 梨花女大大學院, 1984
- 安仁姬, 우리나라 男女 中高等學校 校服變遷에 관한 研究, 성균관대대학원, 1983

〈資料〉

- 〈獨立新聞〉 1896년 4月~1899年 12月
- 〈제국신문〉
- 〈황성신문〉
- 〈만세보〉
- 〈조선일보〉
- 鄭淳在, 寫眞으로 보는 舊韓末, 每日觀光文化史, 1980
- 崔석로, 사진으로 보는 近代韓國(上·下), 서문당, 1987
- _____, 사진으로 보는 朝鮮時代(생활과 풍속), 서문당, 1988
- 金源模外, 百年前の 韓國, 카톨릭출판사, 1986

ABSTRACT

Changing Factors of Korean Women's Costume During The Enlightening Period —Centerring on Group Clothing—

In this paper, it was observed that the influences of social environment that had been

saturated by the modern awareness and western culture effected largely on clothing.

Also it was studied how and by what environmental factors, the costume during the enlightening period was accepted and developed in Korea relative to social cultural environment.

In this research, the emphasis was placed on the process of changing to western clothing, especially the influence of Group Clothing on the general women's clothing. Therefore, the types of group clothing and its influences were studied.

In this study, the types of group clothing recalled were modern women's clothing, missionary women's clothing, professional women's such as nurse uniforms, school girls' uniforms and the invention of women's sports wear. And lastly, it was searched for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in apparels.

From the above mentioned, we can conclude that the clothing is inseparable from social and cultural environments and foreign affairs of politics at the time. Also it is considered that the types of group styles were the necessary happenings in the early stage of modern society. Because of historical situation in Korea, the western clothing style had taken place in a short period of time. However, Korean women's clothing which had been centered around group clothing was considered to have changed from Korean traditional costume to western clothing by rational decisions of modern awareness instead of sudden change from traditional clothing to western clothing by indiscrete acceptance of western culture.